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라의 왕족과 왕비족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

# 갈문왕제 · 골품제 통해 전제왕권 확립

## 1.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

신라의 갈문왕(葛文王)제는 왕족이 왕비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요서 지역을 무대로 건국했던 요(遼)나라가 중세에 들어서면서 왕비족을 광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구장(國舅章)제이다. 국구장제는 왕의 장인 중 일정한 세력가를 왕에 준하는 높은 대우로 관장하는 제도였다. 요나라의 국구장제는 본디 2000년 훨씬 전부터 고대 동호(東胡, 고몽골족)족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로 알려져 있다.

요나라 신화에 의하면 신라 건국신화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사(遼史)>에 실린 갈문왕의 시조설화는 다음과 같다.

“한 신인(神人)이 ‘백마’ (白馬)를 타고 마백산에서 토하를 건너 동쪽으로 왔으며, 한 천녀(天女)는 ‘청우’ (靑牛)가 끄는 마차를 타고 평지 송림에서 황하를 따라 내려와 두 물이 닿는 목역산 기슭에서 서로 만났다.”

이것은 ‘백마-청우’ 설로서 북방 기마민족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조설화이다.

## 오나라와 신라 건국신화, ‘백마’ ‘청우’ 토템 유사

다. 마찬가지로 신라 박혁거세 시조설화에도 ‘백마’가 등장한다. <삼국유사> ‘신라 시조 혁거세왕’ 조목을 보면 ‘흰 말[白馬] 한 마리가 풀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에서처럼 ‘백마’가 나온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제4대 탈해왕에 이어 박씨로서 왕위에 오른 제5대 파사왕 조목에서는 “고타군주(古陀郡主, 安東)가 청우(靑牛)를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에서 ‘청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갈문왕과 대비해 갈문왕 허루(許婁)의 딸이었던 김씨 부인(史省夫人) 이외에 ‘청우’로 묘사되는 왕비족에서 새 왕비를 맞이한 것으로 읽어볼 것인가?

신라 박씨와 갈문왕 사이에는 또 하나 유사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왕을 일컫는 왕의 명호이다. 갈문왕은 왕을 막불(莫弗)이라고 했는데 본디 발음은 ‘박불’이다. 반면 신라는 혁거세를 ‘불구내’ (弗矩內)라고 했는데 ‘불구’가 순수한 우리말로 ‘불’의 혁(赫)이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거세’는 동호족 군장이름인 ‘가사’ 계 명칭이고, ‘박혁’은 갈문왕이 사용하던 왕의 명호인 ‘막불’에 해당한다. 때문에 신라를 건국한 박씨(八夷)의 하나인 赤夷; 烏桓族, 烏丸

族? 왕조와 요나라를 건국한 갈문왕은 본래 ‘동호’ (東胡)족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 민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혁거세 설화에 나타나는 ‘백마’와 고타군주가 바친 ‘청우’는 아마도 이들의 토템이었을 것이다. 왕위에 오른 혁거세(오한족)는 계룡(鷄龍, 鵬)을 토템으로 하는 왕비족과 결합해 신라를 건국했고, 부여계로 추정되는 석탈해왕에 이어 다시 박씨 왕조를 연 파사왕은 다시 ‘청우’를 토템으로 하는 왕비족과 결합해 나라를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갈문왕 제도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통치의 주체였던 왕과 왕족은 방계 왕족 내지 왕비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문왕(葛文王) 제도를 두었다. 갈문왕(葛文王)은 신라 때 혈통을 달리해 왕위를 계승한 임금의 생부(生父) · 장인(丈人, 外舅-國舅) · 외조(外祖) · 동모제(同母弟) · 여왕의 배우자 등의 근친(近親)에게 추봉(追封)한 봉작(封爵)이자 명호였다. 하지만 왕의 생부나 장인이 모두 갈문왕으로 추봉된 것은 아닌 듯하다. 28대 진덕여왕 이후 갈문왕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일부 학자들은 갈문왕은 대왕(代王) 혹은 군장(君長)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처음 박씨왕(朴氏王) 때에는 왕비의 아버지, 즉 왕비족인 김씨족의 장이 책봉됐다. 이어 석씨왕과 김씨왕이 등장해 왕위의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박 · 석 · 김 세 왕족의 왕부(王父)가 원칙적으로 갈문왕에 추봉됐다. 그러나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이후 김씨의 왕위 부자상속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왕위계승자의 지위에서 밀려난 왕제(王弟)가 갈문왕으로 책봉됐다. 이에 준해 왕비와 왕모 혹은 여왕의 남편도 추봉됐다.

갈문왕제에서 ‘갈문’은 ‘간’ (작은 혹은 적은)을 뜻하는 ‘소’ (小)를 가리키는 점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 단군조선 때 연나라에서 망명해온 위만을 본국의 통치자를 보좌하는 임금을 가리키는 명호로서 ‘한왕’ (韓王) 혹은 ‘비왕’ (裨王)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연상해 볼 수 있다. ‘제’ (帝)나 ‘황’ (皇)을 보좌하는 왕은 ‘비왕’ 이었고, 대왕을 보좌하는 이는 ‘소왕’ 이었으며, 왕의 비왕은 군(君), 후(侯), 간(干) 또는 한(汗)이었다. 때문에 대왕을 보좌하는 ‘비왕’은 ‘왕’ 혹은 ‘소왕’ 이었으며 신라의 갈문왕은 왕에 준하는 ‘작은 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적통대인(嫡統大人, 부족장)이었던 고추가(古雛加)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추가는 고구려 때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칭호의 하나였다.

백제는 대왕이었던 의자왕과 달리 소왕이란 제도를 두었다. 백제의 소왕은 신라의 갈문왕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왕은 대군과는 다른 것이었다. 살펴본 것처럼 신라의 갈문왕은 왕실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족 및 왕의 근친 귀족 및 왕과 혈연관계에 있는 최고 성씨집단(林 · 朴 · 金) 또는 가계(家系)의 장(長)에게 주던 칭호였다. 왕의 아버지, 장인, 외조부, 형제 등에게 주어진 갈문왕은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왕위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원군과 부원군(府院君)에 상응하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갈문왕은 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신라 최고 성씨집단의 씨족장, 혹은 가계(家系)의 장에게 준 칭호로서 왕과는 엄연히 구별됐다. 하지만 지배세력 내에서는 왕에 준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갈문왕제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과정에서 시행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중대의 태조무열왕 이후 전제 왕권이 성립되자 갈문왕제는 대왕의 추봉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그 시행의 의미는 미미해졌다. 836년에 왕위에 오른 희강왕의 왕비가 증공 갈문왕



갈문왕은 왕의 개념보다 각 지도층 수장을 상징하는 호칭이었다. 사진은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족 고추가는 왕족인 계부에서는 각 가(各家)의 적통 장자를 가리켰고, 옛 왕족인 소노부 및 왕비족인 절노부에서는 적통대인을 일컫었다. 이것은 ‘존귀한 사람’을 뜻했던 백제의 길사(吉師)와도 상통하고 있

## 갈문왕제, 전제왕권 성립하기 전 왕-왕비족 관계 유지기 위한 제도

는 딸인 것으로 볼 때 이 때까지 갈문왕제는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유독 신라에만 보이는 갈문왕제는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를 엮을 수 있는 주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제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 왕위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와 왕비족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 딸인 것으로 볼 때 이 때까지 갈문왕제는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유독 신라에만 보이는 갈문왕제는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를 엮을 수 있는 주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제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 왕위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와 왕비족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골품제도의 기원

전제 왕권 확립을 위한 지배제도였던 갈문왕제와 함께 신라에서만 보이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제도가 골품제라고 할 수 있다. 본디 골품제도는 신라 지배층 내에서 만들어진 ‘관등제도’였으나 점차 ‘신분제도’로 고착돼 갔다. 골품제는 ‘골제’ (骨制)와 ‘두품제’ (頭品制)의 합성어이다. 골제는 왕과의 혈연관계에 있는 성골(眞骨)과 진골(眞骨)로 대표되는 왕족에 적용되며, 두품제는 왕도(王都)와의 지연관계(地緣關係)에 있는 6·5·4등급의 귀족에 적용된다. 신라의 관등제는 중앙의 경위(京位)와 지방의 외위(外位)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었다. 골품제의 적용을 받은 경위인들은 중앙관직에 진출해 경위를 지급받았다. 중앙귀족인 왕경인(王京人)은 외위(外位)의 규제를 받던 지방인(地方人)과는 신분이 구별됐다. 반면에 지방인들은 골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외위만을 받았다. 점차 신라 왕실은 독자적 영역세력인 ‘가’ (加)와 ‘간’ (干) 등과 같은 ‘족장’ 혹은 ‘군장’을 신라 지배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호 혈연성과 세력 규모에 입각해 지배세력의 서열을 정했다. ‘골’ 제에 의해 편성된 성골(眞骨, 부

모 모두 왕족)과 진골(眞骨, 부모 한쪽 왕족) 역시 지배집단의 입장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신라는 이를 기반으로 진덕여왕까지 성골이 독점 세습했으며 무열왕 이래 경순왕까지는 진골이 왕위를 세습했다.

골품제는 지배층인 ‘국인’ (國人)에게만 적용된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라 정부는 신라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세력을 지배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배층을 ‘골’과 ‘뽕’의 두 쪽으로 나누어 대우를 달리했다. ‘골’ 측은 족장세력이나 유력한 왕실 혈연세력이나 지배층인 거서간과 마립간 등의 ‘간’ 층을 국가 체제로 끌어들이 특권을 부여한 계급이다. 반면 ‘뽕’ 측은 그 세력 규모나 혈연성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했다. ‘골’ 측은 신라에서 차지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거서간과 마립간 등의 ‘간’ 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기에 ‘간군 관등’이라고 불렀다. 반면 ‘뽕’ 측은 ‘간’ 층의 신하계급이며 ‘뽕’ 측에서도 왕족과 왕비족 등의 일부 ‘뽕’ 측만이 관등을 받았으며, 유력하지 못한 ‘간’ 층의 관료와 신하 계급은 ‘뽕’ 측에 끼이지 못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절대적 규칙이었다.

## 골품제, 모든 분야에서 신라인이 규제하며 신분제 고착

관등제도는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골’과 ‘뽕’을 그 능력에 따라 등급을 주어 편성한 관료제도이다. 초기 신라의 12위 관등에서 ‘골’ 측은 1-9위 관등을 차지했고, ‘뽕’ 측은 10-12위 관등에만 머물 수 있었다. 이것은 철칙이어서 ‘뽕’ 측은 절대 ‘골’ 측의 관등에 올라갈 수 없었다. 그리고 ‘뽕’ 측은 그 능력에 따라 제1위(이별찬)~제5위(대야찬) 두품을 두었으며 5두품이 가장 높은 두품이었다. 하지만 10위 관등에서 더욱 업적을 쌓은 ‘5두품’ 들은 더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중위제’ (中位制)였다. 중위제는 당시 10위 관등이었던 ‘나마’에 1등나마, 2등나마, 3등나마로 관등을 세분해 ‘골’ 측의 관등으로 진급하고자 했던 ‘뽕’ 측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이들 12관등으로는 점차 성장해 가는 신라의 관료사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서 범용왕은 12위 관등을 17위 관등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뽕’ 측이 더욱 높은 관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자 지배층은 다시 대나마에 ‘중위제’를 적용했다. 즉 이전 중위제인 나마 중위제를 없애는 대신, 대나마에 1등

나마, 2등나마, 3등나마를 만들어 ‘뽕’ 측들의 진급 욕구를 일부 해소했다. 이 17위 관등은 나마라는 관등 위에 ‘대나마’라는 새로운 10위 관등을 상설해 ‘뽕’ 측들이 1단계 더 진급할 수 있게 했다. 신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삼국 통일기에 가까워지면서 신라사회는 ‘신분제도’의 골품제를 맞이하게 됐다. 이것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진골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통일기 신라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형성된 진골은 5두품 관료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욱 높은 관등을 줌으로써 ‘뽕’ 측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리해, 원래는 10등급 이상으로는 절대 진출할 수 없었던 ‘뽕’ 측에게 신라 6두품 아찬까지 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때문에 신라에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새로운 ‘뽕’ 측이 탄생했고, 이들은 하위 ‘간’ 층 귀족과 맞먹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뽕’ 측인 ‘6두품’은 ‘득남’ (難得)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성’ (貴姓)이었다. 당시 지배층은 혈통을 따져 자신들과 동일계라고 인정되는 계열에 한해 김씨를 주고 성골과 진골로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성씨를 김씨로 정한 것은 최초의 (경주) 김씨인 흥노왕 김일제의 성씨를 따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결국 골품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당시 신라인의 생활을 규제하게 되면서 신분제도로 고착됐다. 골품과 두품은 집안과 신분을 뜻했으며 그들의 ‘벼슬’은 일대(一代)에 제한했으나 ‘신분’은 세습됐다. 6두품이 등장한 이후 하위 두품인 1·2·3두품은 점차 존재감이 사라진 두품으로 전락해 평민화 됐다. 결국 골품에 의한 제한은 후대에 내려올수록 복잡해져서 지배층의 관계(階層)뿐만 아니라 평민화 된 1, 2, 3두품의 생활(의복, 집, 그릇 등)까지 등급을 두어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됐다.

## 참고문헌

- 이홍익, <중보새국어사전>(백만사, 1937; 교학사, 1997).
-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 민족의 기원>(푸른숲, 2000).
- 이홍익, <신라골품제연구>(일조각, 1999).
- 하일식 외,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아카넷, 2000).
- 히스토리야, ‘신라 골품제도에 대한 분석’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면이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p><b>1</b>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기</p> 	<p><b>2</b>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히면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기로 해결합니다</p> 	<p><b>3</b>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b>4</b>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b>5</b>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헹궈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b>6</b>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모주 통과시킵니다.</p> 		
<p><b>7</b>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b>8</b>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b>9</b>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p> 	<p><b>10</b> 다시 매듭을 3번 헹궈 조이면 됩니다.</p> 
<p><b>11</b>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해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p> 	<p><b>12</b> 108염주 완성 신용신한카드번호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p>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렘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다담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